

사회

선수학습 금지령 내린 뒤...

광주 자율형 공·사립고 입학전 학습 프로그램 자구책 마련

상일여고, 인터넷 강의 동영상 제작 흥피 탑재
보문고, 국영수 문제집 배포 전화 상담 '멘토제'
송덕고, 중학과정 점검·고교 과목 준비 유인물
광주일고, 500쪽 과제를 수행 여부 시험과 연계

“다른 학교와 차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잖습니까. 학생을 미리 뽑아놓고 아무런 학습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입학전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선수학습(先修學習)을 전면금지하자 일선 학교에서 교육혁신을 마련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 공교육이 진행해온 입학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기대가 높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일여고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입생 대상 입학전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산되자, 인터넷 강의를 위한 수학 과목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 학교 수학교사 4명은 30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 20편을 찍기로 하고

최근 촬영에 들어가 이미 10여편을 찍었다. 4명이 각 5회 분량을 맡아 중학교 과정을 전반적으로 복습하고 고교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을 담고 있다. 강의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돼 학습자료로 제공된다.

이 학교가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시 교육청이 입학전 학습 프로그램을 금지한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교과활동이 과도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떨어지고 강제적 보충수업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선수학습에 전면적인 제동을 걸었다.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앞서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입학전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차별성을 강조했던 자율형 공·사립고는 대안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입생 배정이 2월1일 확정되는 일 반계고와 달리 자사고와 자공고는 지

난해할 이미 신입생을 뽑아 놓은 처지에서 1개월 동안이나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는 고민끝에 ‘멘토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국영수 문제집을 만들어 학생에 나눠주고 교사들이 멘토가 돼 학생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학습을 지도·관리하는 것이다.

자사고인 송덕고도 학생들에 중학 과정을 점검하고 고교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자발적인 학습을 독려했다.

올해 자립형 공립고로 첫 출발하는 광주일고는 학생들에 500쪽 짜리 과제물(국·영·수 과목)을 배포했다.

일고는 입학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학습과정을 지도하는 게 불가능해짐에 따라 과제물과 시험을 연계해 학습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오는 30일께 과제물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문고 관계자는 “올해 첫 자율형 사립고로 출발하는 점 때문에 학부모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학부모에게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홍보해놓고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구제역·AI 확산...우치동물원 문 닫았다 광주시 북구 생동동 우치동물원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이를 모르고 동물원을 찾은 한 가족이 휴장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전염병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휴장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함바집’ 월 1억2천만원 매출 로비자금 2~3개월이면 뽑아

광주·전남 운영 실태...역대 뒷돈 공공연한 비밀

건설현장의 식당, 즉 ‘함바집’ 운영권 관련 비리에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바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함바집은 건설사 대표와 친인척이거나 경찰 간부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운영권을 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주의 경우 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광산구 수완지구 개발 당시에도 ‘모 아파트 단지의 함바집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역대 ‘뒷돈’이 오고 갔다’는 후문이 무성했다. 또 상당수 건설사가 함바집 운영권을 얻는 데 고참 사립이나 친인척들에게 주는 게 관행이었다.

9일 현재 광주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7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함바집이 운영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함바집 운영권을 놓고 수많은 청탁과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것은 시사하는 많은 수의 인부와 긴 공사기간, 독점 운영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함바집은 1~2년 가 걸쳐 수백명의 인부에게 식사와 새참을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보통 1000세대가 들어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500여명의 인부가 한끼에 4000~5000원 가량의 식사와 하루 2차례씩만 하더라도 한 달 평균 최소 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인부들이 2000원 가량의 라면 등 새참을

먹거나 회식 등을 할 경우 총 매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함바집 운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은 자연스레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에서 총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된 지난 2008년과 달리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함바집을 놓고 벌어지는 운영권 획득 경쟁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함바집 관계자는 “함바집 운영을 시작하면 초기 ‘투자비’ 격인 로비 자금을 회수하는 데 채 2~3개월도 걸리지 않는다”며 “인맥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종자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함바집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창운수 복합가스충전소 설치 불허 광주지법, “북구 반려 처분 정당했다”

복합가스충전소 설치 문제를 놓고 불거진 광주 최대 규모의 버스업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법정 분쟁(광주일보 2010년 10월 11일 6면)이 업체 측 패소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9일 대창운수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구의 불허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0.3t 용량의 액화가스 저장설비가 포함된 고압가스 제조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며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북구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창운수는 광주 시내버스 면허 대수의 33%를 보유하고

있는데, 복합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117억원을 투자한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창운수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북구 오룡동 차고지에 LNG(액화가스)와 CNG(압축가스)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LCNG(액화압축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창운수는 지난해 5월 광주지법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창운수 측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철도 건널목서 열차·승용차 ‘꽂’

광주·전남 주말·휴일 사고 잇따라

한파가 계속된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새벽 0시25분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앞 도로에서 정모(27)씨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앞서 8일 오후 2시45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화해단지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용산발~광주행 새마을호 열차와 양모(33)씨의 예쿠스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양씨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널목은 차량 소용량이 적어 신호로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다. 경찰은 열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2시20분께에는 여수시 소리도 남동쪽 6.43km 해상에서 밀집이 어선을 타고 작업을 하던 김모(57)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여수해양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9일 오전 11시 5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항항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이스타나 승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박모(16·전주시 덕진구)군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목포기

독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8일 오후 1시께에는 광주 무등산 중머리재에서 장발재로 향



지난 8일 광주시 우산동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열차와 승용차 충돌사고 현장에서 광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산소방서 제공>

4000만원 빛 때문에...
다방 여종업원 목매

9일 새벽 2시30분께 김모(여·21)씨가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원룸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남자친구(2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남자친구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오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봤는데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김씨가 4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괴로워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16)



‘파업’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계란·돌 투척 수사

전주지역의 버스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계란과 돌이 투척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계란과 돌이 투척돼 외벽과 계단 등이 페인트로 오염됐고 2층 전보고속 사무실의 유리창이 깨졌다.

터미널 측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보고속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편의점서 추행·소란 40대 ‘술이 웬수’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한 모(47·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전날 밤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노모(여·28)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뒤, 나가려는 말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조사 결과 만취한 상태로 혼자 편의점에 들어간 한씨는 1시간 가량 소주를 더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질 이후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양수원기자 yang@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